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 경상좌병사 박진(朴晉)과 권응수(權應銖)의 활동을 중심으로 -

김진수**

1. 머리말
2. 임진왜란 개전 초기 경상좌도의 상황과 조선군의 동향
3. 경상좌도 조선군의 재편 과정과 반격 양상
4. 맺음말

1. 머리말

16세기 말에 발발하였던 임진왜란은 조선·일본·명 등 삼국이 참전하였는데, 이전에 겪어 보지 못했던 대규모 국제전쟁이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화약무기가 전투에서 전면적으로 사용되어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아울러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대규모 국가간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 본 논문은 2011년 6월 11일 경북대 퇴계연구소가 주관한 韓·中 國際學術大會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 육군3사관학교 전쟁사학과 전임강사

참전국들은 향후 예상되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 재정, 상공업 등 사회 체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¹⁾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한국의 군사사 연구 가운데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

임진왜란 극복의 요인은 대표적으로 조선 수군의 활약과 의병의 활동, 그리고 명군의 참전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 의병의 활동이 전쟁 극복의 주요한 요인이었다는 인식은 현재까지 한국 사학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개전 초기 일본군의 빠른 진격에 조선군 지휘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와해되면서 각 지역의 수령과 장수들이 피난함에 따라 국가 통제력이 상실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이를 대신하여 의병이 육상 전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의병의 주된 구성원에 대해서는 사족의 주도 하에 향촌의 주민과 천민 등 하층민으로 인식한 경향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개전 초기 허약한 관군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당시 조선의 무기력한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부정적인 근거의 하나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임진왜란 관련 연구에서는 의병에 대한 성과³⁾가 풍부한 반면에 전쟁 극복의 주요한 주체인 관군의 활동에 대한 연구⁴⁾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으며, 관군의 기여도를

- 1) 노영구, 「군사혁명론과 17~18세기 조선의 군사적 변화」, 『서양사연구』 36, 2007, 36쪽.
- 2) 지금까지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있어, 일일이 제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의 연구사를 전반적으로 정리한 성과만 소개한다.
이장희, 『倭亂과 胡亂』, 『한국역사입문-제2판』, 지식산업사, 1987 ; 河宇鳳, 「사대교린관계와 양란」, 『한국역사입문』 2, 한국역사연구회, 1995 ; 오종록, 「壬辰倭亂~丙子胡亂期 軍事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軍史』 38, 1999 ; 조원래, 「壬辰倭亂史 研究의 推移와 課題」, 『조선후기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 박재광, 「壬辰倭亂 研究의 現況과 課題」,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 3) 임진왜란 당시 의병에 대한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김강식, 「壬辰時 義兵戰爭」,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계승범, 「임진왜란의 연구 동향과 군사사적 의의」, 『임진왜란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가치』,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09.
- 4) 박성植, 「壬辰倭亂의 研究 - 壬辰·癸巳年 晋州城 戰鬪를 中心으로-」, 영남대학교사학위논문, 1985 ; 張學根, 「壬辰倭亂기 官軍의 活躍」, 『韓國史論』 22, 1992 ; 송정현, 「壬辰倭亂論 : 官軍과 義兵의 역할 문제」, 『전남사학』 8, 1994 ; 박재광, 「임란 초기전투에서 관군의 활동과 권율」, 『임진왜란과 권율장군』, 전쟁기념관, 1999.

초기 전투보다 1593년 이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⁵⁾ 기존의 의병 연구는 주로 의병과 관군을 분절적 혹은 양자간의 상대적 우위를 주장하였거나, 의병의 준관군적인 측면을 주로 의병장의 관직 제수에 따른 의병 성격의 변질에서 찾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⁶⁾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점차 임진왜란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시도되고 있다. 먼저 관군의 동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전 초기 조선군의 대응과 동원체제는 적절히 작동하였으나 전술적 취약성으로 인해 패배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⁷⁾ 이러한 입장은 개전 초기 경상도 지역에서의 군사체제가 작동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재확인되고 있다.⁸⁾ 또한 임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⁹⁾와 경주관관 朴毅長을 통해 경상좌도 관군의 활동을 구명한 성과¹⁰⁾가 나오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임란 초기 관군의 부정적 이미지와 역할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극복하면서, 이들의 전쟁 기여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임란 당시 지방 수령의 도망으로 인한 통치력 부재에 대한 기존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이전에 중앙과 지방이 예전부터 구축했었던 행정 체계가 전쟁 중에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기에 각 지역의 수령들이 대처할 수 있었다는 연구가 나타났다.¹¹⁾ 이러한 시각은 전쟁 당시 지방 수령들의 대응 양상을 전쟁의 시기별·지역별로 새롭게 살펴볼 수 있다는 것과 나아가 지휘부의 와해에도 군현별 행정 운용은 물론 지역 방어 체계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병의 구성과 성격에 대한 이해이다. 의병의 구성이 향촌민이

5) 오종록, 앞의 글, 1999, 353쪽.

6) 金康植, 「壬辰倭亂 義兵의 性格 變化 - 義兵의 官軍化 問題 - 」, 『釜大史學』 19, 1995.

7) 노영구, 「壬辰倭亂 초기 양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재검토」, 『韓國文化』 31, 2003.

8)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軍史』 77, 2010.

9) 하태규,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관군의 동향과 호남방어」, 『한일관계사연구』 26, 2007.

10)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경상좌도 방위활동」, 『軍史』 76, 2010.

11) 李仙喜, 「임진왜란 시기 咸陽 수령의 전란대처 - 『孤臺日錄』을 중심으로 - 」, 『진단학보』 110, 2010.

아닌 낙오된 관군인 이른바 ‘散卒’이 주력이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를 花園縣 의병장인 우배선 부대의 구성을 통해 확인한 연구가 나타났다.¹²⁾ 또한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지역 의병의 주력이 산졸들로 편성되었으며, 기본적으로 準官軍的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였다.¹³⁾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임란 초기 경상좌도 전쟁 양상에 대한 연구는 지역 의병의 활동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의병의 입장에서 그 성립과 전투 양상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졌다.¹⁴⁾ 그러나 이 지역의 의병장에 대한 문중 사료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나머지 의병의 주요 구성원이 단순히 충의에 바탕을 둔 창의군으로 이해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의병의 시각에서 전투 양상을 다룬 결과, 상대적으로 관군의 대응 양상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¹⁵⁾

그러나 경상도 관찰사의 서리였던 李擢英의 『征蠻錄』과 의성 의병장이었던 申佺의 『亂蹟彙撰』¹⁶⁾ 등에서는 지방 수령 및 관군의 동향에 대한 세부

12) 이수진, 「월곡 우배선의 임진왜란 의병활동」, 『민족문화논총』 13,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13)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 『역사와 현실』 64, 2007.

14) 문수홍, 「壬亂 중 慶尙左道地方의 義兵活動-壬辰年 永川·慶州城 收復戰을 中心으로-」, 『소헌남도영박사화갑기념 사학논총』, 1984 ; 최효식, 「임진왜란기 경주전투」, 『경주사학』 10, 1991 ; 『경주부의 임란항쟁사』, 경주시문화원, 1993 ;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투의 고찰」, 『대구사학』 47, 1994 ; 「임란 초 경주 의병활동 연구」, 『경주사학』 16, 1997 ; 「경주부의 임란의병기록에 관한 연구」, 『신라문화』 19, 2001 ;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15) 물론 앞서 언급하였던 朴毅長에 대한 연구(장준호, 앞의 글, 2010.)는 경상좌도 관군의 동향을 어느 정도 밝혀냈지만, 그의 문집인 『觀感錄』과 경주성 수복전투 등을 중심으로 다루다보니 경상좌도의 전쟁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했다.

16) 신홍(1550~1614)은 본관이 鵝洲로 의성에서 출생하였다. 임란 발발후 국왕의 몽진으로 형 申佺과 함께 의성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당시 의병활동을 하던 김해, 유종개, 정세아 등과 함께 연합하여 일본군에 대항하기도 하였다. 이후 1603년에 임란 당시의 경상도 내 사적을 지어 보내라는 조정의 명으로 『난중사적』을 저술하였다. 이 기록이 轉寫되어 『난중회찬』이라는 서명으로 아주 신씨 가문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하태규, 「성은 신홍의 생애와 『난중회찬』」, 『역주 난적회찬』, 역락, 2010, pp.215~217). 이 사료는 임진왜란 당시의 문헌들을 참고하고 보고 들은 바를 보완하여 기록한 것으로서 임란 초기 경상도의 상황을 새로이 살필 수 있는 귀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적인 내용이 보인다. 이를 살펴보면 개전 초기 경상좌도의 주요 지역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한 상황에도 일부 관군 장수들은 임지에서 守城에 임하고 있었으며, 지방관들의 공백이 있는 지역에서는 權應銖 등의 의병장들이 산졸들을 수습하면서 항전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좌도의 지휘부가 와해된 상태에서 이 지역의 조선군은 조직적인 반격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밀양 부사 차췌이 6월에 경상좌병사로 임명된 이후 좌도의 조선군은 신속한 재편이 가능하였고, 이는 일본군에 대한 전면적인 반격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조선군은 영천성과 경주성 등 주요 읍성들을 수복하였고,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박진의 전공은 당시 선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중앙 관료들이 이순신의 공과 다름이 없다고 하여 인정하고 있었으며,¹⁷⁾ 영남의 민심도 그가 없었다면 이 지역이 일본군의 소굴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¹⁸⁾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박진의 활동과 그 역할에 대해서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개전 초기부터 6월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에 대한 저항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상좌병사 박진에 의해 이 지역의 군사 활동이 활기를 띠었다는 것¹⁹⁾과 영천성 수복을 위해 그가 각 陳의 부대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서 기일을 약속하였다는 사실²⁰⁾ 등을 살펴볼 때, 당시 박진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²¹⁾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연구에서 관군이 전쟁 극복의 주요한 한 주체였다는 것과 의병 부대가 ‘散卒’로 편성된 준관군적인 부대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임진왜란 초기 조선군의

17) 『선조실록』, 권30, 25년 9월 14일 辛未.

18) 『선조실록』, 권27, 25년 6월 28일 丙辰.

19)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壬辰倭亂史』, 1987, 114쪽.

20)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55쪽.

21) 박진은 임란 당시 관군 장수 중 지대한 전공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스스로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아 『宣祖實錄』과 같은 正史 및 『燃藜室記述』 등의 野史와 『白雲齋實紀』, 『亂蹟彙撰』 등의 기록을 통해서 그의 행적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진의 행적을 대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다음의 논문이 유일하다.

金康植, 「임진왜란 시기 密陽地域의 義兵抗爭과 의미」, 『釜大史學』 28·29, 2005.

대응 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군과 의병의 연합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지역인 경상좌도, 그 중에서도 경상좌병사 박진과 권응수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 지역 조선군의 대응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白雲齋實紀』, 『觀感錄』, 『征蠻錄』 등 의병장 및 관군 장수의 문집과 『亂中雜錄』, 『壬辰日記』 등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하되, 임란 당시 경상도 사적을 종합한 『亂蹟彙撰』을 함께 활용하겠다.

2. 임진왜란 개전 초기 경상좌도의 상황과 조선군의 동향

1) 임진왜란 개전 초기 경상좌도의 상황

1592년(선조 25) 4월 13일 부산진포에 상륙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일본군 1번대는 이튿날 부산진성을, 이어 다대포성을 공략하여 점령하였으며 15일에는 동래성에 진입하였다. 당시 진주 근처에 머무르고 있었던 경상도 관찰사 金睟는 일본군의 침공 소식을 접수하고 곧바로 경상도 지역 군사의 최초 동원을 명령하였다.²²⁾

경상좌병사 이각도 급히 좌병영의 군사를 이끌고 동래성으로 들어와 있었으며, 양산 군수 조영규와 울산 군수 이연성 등이 이끄는 군사들도 이미 집결해 있었다. 또한 밀양 부사 박진과 경주 판관 박 의장 등도 군사들을 인솔하여 동래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울산의 좌병영을 중심으로 13읍의 군사들이 집결하는 등 조선군의 초기 대응은 일단 작동되었지만, 전력의 현격한 격차와 좌병사의 도망으로 인해 동래성이 함락되었다. 이후

22) 『征蠻錄』 乾, 임진년 4월 15일·16일.

일본군은 4월 16일에 경상좌수사 박홍이 이탈한 좌수영에 진입하면서, 기장과 양산을 차례로 함락시킨 후 밀양으로 진격하였다.

일본군 1번대에 이어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일본군 2번대는 18일 부산포에 상륙하여 다음날에는 양산을 경유하여 언양에 진입하였다. 이후 이들은 울산의 좌병영을 향해 계속해서 진격하였다. 당시 좌병영의 상황은 좌병사 관할지역내 13읍 군사들이 모두 도착하여 수성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동태를 이탈한 적이 있었던 이각은 또다시 본영에서 도망치고 말았다. 결국 경상좌도를 총지휘하는 主將의 도망으로 혼란에 휩싸인 좌병영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20일에 일본군의 공격에 의해 함락되면서,²³⁾ 경상좌도의 방어체계는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다.

한편 동태로 이동하고 있었던 경주 판관 박 의장은 좌병사 이각의 명령에 따라 다시 경주성으로 돌아왔다.²⁴⁾ 당시 경주성은 경주부의 군사외에 장기현의 군사와 함께 병영군 500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 경주 부윤 윤인함은 경상도 순찰사 김수에 의해 捕亡將에 임명되었는데, 박 의장이 경주성으로 돌아올 때까지 성을 지키고 있다가 그가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좌병사 소속의 병영군 500명을 소속시키고 포망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갔다.

한편 박 의장은 경주성에 도착하면서 장기 현감 이수일과 함께 모든 장수와 군사들에게 명령해 농성전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탐정군의 이탈로 인해 박 의장 등은 적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주성을 일본군에게 내주고 말았다.²⁵⁾ 이는 경상좌병영의 함락에 따른 지휘체계 와해로 사기가 극도로 떨어진 경주의 조선군이 일본군의 압도적인 공세를 감당하기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경주성을 점령한 일본군은 이를 후인 24일에 영천성마저 함락시켰다. 당시 영천군수 김윤국은 새로 축성된 영천읍성에서 제대로 싸워

23) 『亂中雜錄』, 임진년 4월 21일.

24) 『觀感錄』 권1, 「家傳」, 임진년 4월.

25) 『觀感錄』 권1, 「家傳」, 임진년 4월.

보지도 않고 충청도로 도망치게 되면서,²⁶⁾ 이 지역의 관군과 백성들도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조선군을 연이어 격파해 나가던 일본군은 한성을 향해 신속히 북상하였다. 즉 부산진과 동래성을 함락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본군 1번대는 좌수영-기장-양산-밀양-대구-인동-상주-조령-충주로 진격하였고, 가토 기요마사의 2번대는 양산-언양-경주-영천 방면으로 진공하였다. 4월 18일에는 일본군 3번대와 4번대가 경상남도 김해에 상륙하였고, 5월에 들어서 후속 부대를 상륙시켜 경주, 영천, 밀양, 대구, 성주, 현풍, 선산, 개령, 금산, 상주 등 경상도 주요 지역에 나누어 주둔시키고 점령 지역마다 진영을 설치하였다.²⁷⁾ 따라서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의 군현 중에서 일본군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인 영천(榮川), 풍기, 봉화, 진보, 청송, 영덕, 청하, 홍해 등 안동진과 경주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일본군에게 유린당했다.²⁸⁾

이렇게 임란 초기 일본군의 신속한 진공과 조선군의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 일부 지역의 수령과 장수는 산악 지대나 다른 지역 등으로 피신하였으며, 대부분의 군졸들도 각지로 흩어지는 등 군사력이 와해되었다. 이에 따라 5월 이후 경상도의 주요 길목에 소규모의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으며, 이들과 함께 주변 지리에 익숙한 倭賊化된 농민들이 노략질을 일삼으므로 그 피해는 매우 컸다.²⁹⁾

26) 영천 군수 김윤국이 도망친 행적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내용이 상이하다. 영천 의병장 정대임의 『昌臺實紀』에서는 기룡산에 있는 묘각사로 도주하였다는 내용이 나오고(정대임, 『장대실기』 권2, 행장), 신희의 『亂蹟彙撰』에서는 충청도로 도망쳤다는 기록이 나온다(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2010, 55쪽). 경상도안집사 김득의 장계에서는 김윤국이 충주로 도망쳤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그가 충청도로 도망쳤다는 행적을 뒷받침해 준다(金功, 『栢巖集』 권5, 「條陣慶尙道軍情賊勢狀啓」).

27) 北島萬次(기타지마 만지), 『豊臣秀吉 朝鮮侵略』, 吉川弘文館, 1994(김유성, 이민웅 번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경인문화사, 2008, 47쪽).

28) 『宣祖實錄』, 권27, 25년 6월 28일 丙辰 :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2010, 61쪽.

29) 조정, 『임진일기』, 임진년 5월 2일.

2) 경상좌도 관군의 항전과 의병의 활동

전쟁 초기 일본군의 신속한 진공과 현격한 열세로 패배를 거듭하였던 경상좌도의 조선군은 그 지휘체계와 군사력이 와해되고 말았다. 이러한 경상좌병영의 지휘권 부재와 군사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경상좌도 진관³⁰⁾에 소속된 각 군현별 장수들은 일본군의 침입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의 본營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이탁영의 『정만록』 중 경상 감사의 장계에서는 이러한 조선군의 대응 동향이 잘 나타나고 있다.³¹⁾

먼저 경주진의 상황을 살펴보면, 부윤과 판관을 비롯하여 홍해 군수와 장기 현감, 영일 현감, 청하 현감 등은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여 유격전을 수행하면서, 책임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 특히 경주 판관 박 의장은 죽장 현에 주둔하면서 흩어진 백성과 군사들을 수습하고 대장간을 설치하여 화살 등의 무기를 제작하는 한편, 정예병을 선발하여 가장 중요한 지점에 복병을 배치시켜 일본군의 길목을 차단하거나 배후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또한 밤에는 산 위에서 봉화를 피우고 낮에는 성 밖에서 돌격전을 감행하는 등 일본군을 상대로 주야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³²⁾ 그리고 경주 부윤

30) 당시 경상좌도의 진관 편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李謙周, 「壬辰倭亂前 朝鮮의國防實態」, 『韓國史論』 22, 1992, 31쪽).

| 구 분 | 첨절제사 | 동첨절제사 | 절제도위 |
|------|---------|----------------------------------|--|
| 경주진관 | 경주부윤 | 울산군수, 양산군수, 영천군수, 홍해군수 | 경주판관, 청하현감, 영일현감, 장기현감, 기장현감, 동래현감, 언양현감 |
| 안동진관 | 안동대도호부사 | 영해부사, 청송부사, 예천군수, 영천(榮川)군수, 풍기군수 | 안동판관, 의성현령, 봉화현감, 진보현감, 군위현감, 비안현감, 예안현감, 영덕현령, 용궁현감 |
| 대구진관 | 대구부사 | 밀양부사, 청도군수 | 경산현령, 하양현감, 인동현감, 현풍현감, 의흥현감, 신녕현감, 영산현감, 창녕현감 |

31) 『征蠻錄』 坤, 임진년 7월 25일.

32) 『觀感錄』 권1, 「家傳」, 임진년 4월. “以圖桑榆也 遂率官吏 立稱保竹長縣 招集軍民之避匿者 稍有膽氣者 無不影從 於是置治鑄箭 授兵分屯 別擇智勇之士 設伏要害之處 或遏截之 或尾擊之 夜則列化峰頭 晝則馳突城外 由是據城之賊 稍戢憑陵之氣 不敢大肆搶掠.”

윤인함은 기계현에 주둔하면서 의병장 박인국 등을 領將에 임명하는 등 군사들을 모았고, 4월 24일에는 仙桃山에서 차출한 의병들을 南川, 鷄林 등 요지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였다. 한편으로 그는 피난민 중에서 1,000여 명의 군사들을 모으는 등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다.³³⁾

여기서 이들이 거점으로 삼았던 죽장현과 기계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경주부에는 4倉이 있었는데, 신광창·기계창·죽장창·안강창 등이 있었다.³⁴⁾ 박 의장과 윤인함이 4개의 창고가 위치해 있던 지역 중 죽장현과 기계현에 각각 주둔한 이유는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하나는 경주성을 수복하기 위한 군량미와 병장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리적으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으로 경상좌도 지역에서 피난한 군사와 백성들이 은둔한 지역으로서 군사 징발이 용이하였다는 점이다.³⁵⁾ 따라서 박 의장 등이 지휘하는 경주의 관군은 창고가 위치한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항전을 벌일 수 있었던 데 비해, 상대적으로 현지에서 보급을 해결해야 하는 일본군에게는 매우 불리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동진에서는 비록 부사와 판관이 이탈하였지만, 영해 부사와 청송 부사, 영천 군수, 의성 현령, 봉화 현감, 진보 현감, 군위 현감, 예안 현감, 영덕 현령, 용궁 현감 등이 일본군의 공격으로부터 각기 책임 지역을 지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안동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예안 현감 신지제의 경우 6월까지 임지를 지키면서 적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³⁶⁾과 용궁 현감 우복룡도 고을을 지키면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 공로로 조정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는 점³⁷⁾을 들 수 있다.

33) 최효식, 앞의 책, 1993, 51쪽.

3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21, 경상도, 경주부.

35) 장준호, 「임진왜란시 朴毅長의 경상좌도 방위활동」, 한국학중앙연구원석사학위논문, 2008, 62~63쪽.

36) 경상북도·영남대, 『경북의명사』, 1990, 235쪽.

37) 『선조실록』, 권26, 25년 5월 15일 甲戌.

일본군 주력의 침공 경로로 이용되었던 대구진은 부사를 비롯하여 청도 군수와 경산 현령, 인동 현감, 현풍 현감, 영산 현감 등도 일본군의 침입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 중 현풍 현감은 근왕군으로 종군하다가 병사하였고, 영산 현감은 전사하였다. 경상 좌수영의 경우 칠포 만호와 축산포 만호 등도 각자 성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경상좌병영의 장수들은 지휘부가 와해되었음에도 각자의 책임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던 반면, 지방관들이 이탈한 지역에서는 전직 군관이나 士族 등이 이들을 대신하여 의병을 일으키면서 적의 침입을 막고 있었다. 이들 중 대구진과 경주진 일대의 의병들을 총지휘하였던 의병대장이 권응수이다. 권응수는 본관이 안동으로 신녕현 추곡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1582년(선조 12) 별시 무과에 합격하고, 의주에서 국경수비에 종사하다가 1591년에는 경상좌수사 박홍의 밑에서 복무하였던 군관이였다.³⁸⁾ 전쟁이 발발하여 박홍이 좌수영을 이탈함에 따라 권응수도 다른 군사들과 마찬가지로 흩어지면서, 고향인 신녕으로 돌아갔었다. 그런데 신녕 현감 한척이 일본군의 침입을 피해 산속으로 피신하여³⁹⁾ 이 지역이 일본군의 침입에 노출되었다. 이에 권응수는 4월 27일 고을을 지키기 위해 동생 권응전·권응평과 家僮 4~5인, 保人 이운수 등을 거느리고 군사들을 수습하면서 거병하였다.⁴⁰⁾ 권응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상좌도 지역의 의병 부대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직 군관이나 각지의 사족 등을 중심으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영천에서는 정세아와 정대임이, 하양에서는 신태가, 자인에서는 최문병이, 경산에서는 최대기가, 경주에서는 김호 등이 각 지역 기반에 따라 독자적으로 의병 부대를 이끌었다. 이렇게 조직된 여러 의병 부대의 초창기 주요 활동은 향촌 지역 내에서 노략질을 하였던 일본군과 이들과 결탁한 조선인을 격퇴하는 것이었는데, 같은 진내에서 접경을 이루고 있었던 경주진의 영천 의병부대와 대구진의 신녕 의병부대가

38) 『白雲齋實紀』 권1, 「年譜」 만력 19년.

39) 申屹, 『譯註 亂蹟彙撰』, 역락, 2011, 55쪽.

40) 『白雲齋實紀』 권1, 「啓」 3면.

부분적으로 제후가 이루어졌다.

당시 영천 官奴 희손 등의 수백 명의 무리들이 지역 일대에서 노략질을 하면서 일본군과 내통하고 있었는데,⁴¹⁾ 권응수는 정대임 등과 연합하여 이들을 토벌한 것을 시작으로 大洞과 신녕 동쪽의 漢川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여 義城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등의 전공을 세웠다.⁴²⁾

이때 권응수 등이 지휘하였던 의병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농민과 향촌민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다는 것과 달리 주로 낙오된 관군 출신자들이었음이 분명하다. 당시 경상도 지역 전역에는 다수의 낙오된 군병이 거주하는 각 군현 주변의 산간 계곡 사이에 흩어져 있었던 상황이었다.⁴³⁾ 이는 임진왜란 초기 일본군의 신속한 진격으로 인해 지방 수령 등 이들을 지휘할 조선군의 지휘부는 상당히 와해되었지만, 대부분의 군졸들은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다.⁴⁴⁾ 다음의 사료들은 영천을 비롯한 경상 좌도 지역의 의병이 모집되어 부대가 편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A 훈련봉사 권응수가 군사를 일으켜 賊(일본군)을 토벌하였는데, 그의 관할 하에 응모한 자들은 모두 한때 무사들로서 영천에 사는 정대임과 함께 왜적을 토벌하니, 사로잡거나 참한 자가 자못 많았다.⁴⁵⁾

B 영천군에 가까운 면의 군인 100여명이 기약하지도 않았는데 모였거늘 같은 군에 거주하는 의병장 정대임이 병사를 모아 거둬하여 서로 통하였습니다.⁴⁶⁾

C 영천 북병장 정대임과 하양 신해와 의흥 북병장 홍천뢰와 경주 임내와 자인현 북병장 등이 있는 곳에 군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⁴⁷⁾

41) 『白雲齋實紀』 권1, 「年譜」, 만력 20년 5월.

42) 『白雲齋實紀』 권2, 「永川復城記」, 9면.

43) 李魯, 『譯註 龍蛇日記』, 한일문화연구소, 57쪽 : 조정, 『임진일기』, 임진년 4월 24일.

44) 노영구, 앞의 글, 2007, 42쪽.

45)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150쪽. “有訓練奉事權應鍊 舉兵討賊 其管下應募者 皆一時武士 與永川居鄭大任 同事 捕斬頗多”

46) 『白雲齋實紀』 권1, 「啓」, 4면. “永川郡比面軍人百餘名 不期而會爲白有去乙 同郡居義將鄭大任聚兵 再再相通”

47) 『白雲齋實紀』 권1, 「啓」, 5면. “永川伏兵將鄭大任 河陽中海 義興伏兵將洪天賚 慶州任內慈仁縣伏兵將等處軍人聚集”

D (8월 1일) 경상도 영천진사 정세아, 신녕봉사 권응수, 하양봉사 신해, 고성봉사 최강이 모두 募兵해서 적(일본군)을 토벌하다. 세아의 나이 67세이다. 적이 막 본성에 據하고 있었는데, 세아가 좌수 유몽서, 생원 조희익 등과 더불어 散軍들을 招集하여 적을 捕斬한 것이 매우 많았다.⁴⁸⁾

사료 A는 권응수가 최초 의병 부대를 편성하였을 때 주된 구성원이 한때 무사들이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은 하급 군관들로 흩어진 군졸들을 수습하여 권응수 부대가 급속히 편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그가 일찍이 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군사 지휘경험이 있었기에 신속한 재편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사료 B~D는 영천을 비롯한 좌도 지역 의병장들에 의해 해당 지역의 흩어진 군사들이 모여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들이 의병 부대의 주된 구성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군졸들이 지휘체계의 붕괴에 따라 흩어져 있었고, 이는 의병 부대의 급격한 증강과 관군의 재편을 가능하도록 하는 배경이었다. 실제로 임진왜란 중 최초로 기병한 경상우도의 광재우 의병 부대도 전쟁 초기 각지에 방황하고 있었던 捕將, 散卒을 효과적으로 수용하여 전투 병력화한 사례⁴⁹⁾가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경상좌도 의병 부대는 전쟁 초기 관군 지휘부가 와해되면서 일부 지방관이나 장수들이 도망쳤을 때 정대임·정세아 등 지방 유력 사족 등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흩어져 있던 관군이 편성되었다. 이들은 군사 지휘경험을 가진 관관 권응수의 지휘하에 연합하여 전투를 수행한 변형된 형태의 準官軍의인 부대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전쟁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 양상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관군이 거의 붕괴되고 의병이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 내막을 좀 더 면밀히 보면 앞서 살펴 본 바대로 적지 않은 관군 장수들이 아직까지도 해당 지역에서 수성에 임하고 있었으며, 이른바 의병

48) 『亂中雜錄』, 임진년 5월 20일. “慶尙道永川進士鄭世雅 新寧奉事權應錄 河陽奉事中海 固城奉事崔罔 皆募兵討賊 世雅時年六十七 賊方據本城 世雅與座首柳夢瑞 生員曹希益等招集散軍 捕斬頗多”

49)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466쪽.

으로 알려진 군병들도 대개 흩어진 관군들이 다시 모여 편성한 병력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쟁 당시 조선 관군의 대응이 거의 무능하였으며 결국 의병이 이를 대신하여 육상 전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그동안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3. 경상좌도 조선군의 재편 과정과 반격 양상

1) 경상좌도 조선군의 군사력 재편과 대응 과정

개전 초기 경상좌도의 조선군은 일본군의 신속한 진공과 전력의 열세로 패배를 거듭하였지만 각 군현별 장수들은 임지에서 수성하면서 일본군의 침입에 항전하고 있었고, 지방관들의 공백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직 관군과 사족 등의 의병장들이 이를 대신하여 흩어진 군졸들을 수습하면서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상좌도내 관군 장수들과 의병장들의 끈질긴 항전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의 조선군은 주요 지역을 수복하기 위한 통합된 반격 작전을 감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개전 초기 일본군의 침공에 대해 경상좌병사 이각이 도망함으로써 조선군의 지휘부가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상좌도는 도내의 군사기관이나 행정관서의 명령체계가 확립될 수 없었으며, 6월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에 대한 저항태세가 갖추어지지 못했다.⁵⁰⁾ 그런데 5월 경상도 근왕군으로 종군하고 있었던 밀양 부사 박진이 온양에서 경상좌병사로 임명을 받았다.⁵¹⁾ 이는 좌도의 조선군 지휘체계를 복구하면서 전면적인 반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0)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壬辰倭亂史』, 1987, 114쪽.

51) 『선조수정실록』 권26, 25년 5월 1일 庚申 ; 『征蠻錄』 乾, 임진년 5월 25일 ; 申佻, 『譯註 亂蹟彙撰』, 역락, 30쪽.

박진은 1560년(명종 15)에 출생하였으며 본관은 밀양, 자는 明甫였다. 1589년(선조 22) 沈守慶의 천거로 불차채용되어 宣傳官과 訓練副正을 거쳐 밀양 부사가 되었다.⁵²⁾ 1592년 전쟁이 발발하자 박진은 4월 15일 동래 북쪽 蘇山驛과 17일 밀양의 작원관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전력의 열세로 연이어 패배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일본군의 침입에 맞서 끈질기게 항전하였으며, 이후 종4품인 밀양 부사에서 과격적으로 종2품인 경상좌병사로 승급이 되었다. 이는 박진이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국왕 선조를 비롯한 중앙관료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그가 경상좌도의 악화된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국왕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쟁 초반에 와해된 경상좌도의 지휘체계 복구와 군사력을 재편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6월 15일경 박진은 군관 이사언 등 30여 명과 함께 고령에서 밤에 낙동강을 건너면서, 우선 조치로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위해 안동 등지로 이동할 것이니 각 수령들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伏兵을 운용할 것과 해당 지역의 전황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읍에 하달하였다. 그리고 현풍과 밀양을 경유하여 풍각현에 당도한 그는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들였는데, 과거 밀양 부사를 역임했던 박진에게 500여 명이 모여들 수 있었다.⁵³⁾ 이후 박진은 청송 등 안동 방향으로 이동하였는데,⁵⁴⁾ 여기서 그가 안동으로 방향을 돌린 이유는 우선 이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안동 지역은 앞장에서 언급했지만 전쟁초기 일본군의 침입이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장수들이 각자 본영을 지키고 있었다. 또한 5월에 慶尙道安集使 金玘이 이 지역에 부임하여 招募 활동을 통한 사족 중심의 의병 부대를 편성하면서 흐트러진 군정 체계를 바로 잡고자 하였던 상황이였다.⁵⁵⁾ 따라서 그가 안동으로 향했다는 것은 경상좌도의 군사력 재편이

52) 『燃藜室記述』 권17, 宣朝朝故事本末 : 『선조실록』 권23, 22년 1월 21일 己巳.

53) 申佺, 『譯註 亂蹟彙撰』, 임진년 6월 15일 : 『亂中雜錄』, 임진년 7월 5일 : 『征蠻錄』 坤, 임진년 7월 25일.

54) 『亂中雜錄』, 임진년 7월 5일 ;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30쪽.

55)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近始齋 金垓의 의병 활동」, 『군자리 그 문화사적 성격』, 토우.

필요한 상황에서 이 지역을 거점으로 좌병영을 재설치하고 군사력을 장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주요 읍성들을 수복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밀양 일대에서 군사들을 수습한 박진은 6월 22일 경상좌도로 넘어오게 되었는데,⁵⁶⁾ 이 때에 일본군이 안동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감행하고 있어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6월 5일 일본군이 용궁과 예천에 난입하였는데,⁵⁷⁾ 관군만으로 제압하기 어려울 만큼 그 규모가 강대하였다.⁵⁸⁾ 15일에는 안집사 김득이 예안 현감 신지제와 용궁 현감 우복룡에게 명을 내려 多仁과 義城의 일본군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조선군은 오히려 크게 패배하여 그 손실이 막대하였다.⁵⁹⁾ 조선군을 패배시킨 일본군은 그 여세를 몰아 22일에는 안동을 함락시키고, 7월 1일에는 예안에 들어와 많은 피해를 입혔다.⁶⁰⁾ 또한 영해 부사 한효순이 장기 현감 이수일, 영일 현감 홍창세, 흥해 군수 최보신, 청하 현감 정응성, 영덕 현령 안진 등과 더불어 일본군을 맞아 공격하기로 하였는데, 강원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의 침입으로 역시 패배함으로써⁶¹⁾ 안동진은 물론 경상좌도 전역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편 신병에 도착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접하게 된 박진은 영천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권응수를 助戰將(助防將)으로 삼아 수하에 두었고, 청송·안덕을 경유하여 7월 5일에는 진보에 당도하였다.⁶²⁾ 이후 그는 이 일대에서 군사력을 확보하면서 안동과 예안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을 축출하고자 하였다.⁶³⁾ 그러나 박진이 지휘권 장악과 군사력 수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2001, 186~188쪽.

56) 『白雲齋實紀』 권2, 「啓」 4면. “六月 二十二日 左道兵馬節度使朴晉 自右道越入本道”

57) 鄭士誠, 『芝軒集』 권3, 「임진일록」 6월 초5일.

58) 鄭士誠, 『芝軒集』 권3, 「임진일록」 6월 13일. “官軍不能擒賊 但望京路 敵陣大盛 彌萬各邑 莫敢下手 皆鬱山谷”

59) 金功, 『栢巖集』 권5, 「條陣慶尙道軍情賊勢狀啓」, 권7, 「年譜」, 만력 20년 6월.

60) 노영구, 앞의 글, 2001, 191쪽.

61)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47쪽.

62) 『亂中雜錄』, 임진년 8월 1일 ; 『白雲齋實紀』 권2, 「永川復城記」 9면.

63) 『白雲齋實紀』 권2, 「啓」 4면. “靑松眞寶等處往來 竄伏男丁乙 召聚結集 安東禮安等屯聚之賊

겪었는데,⁶⁴⁾ 전임자 이각이 과거 병영을 이탈하면서 印信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각 관아에서는 박진의 傳습을 잘못 전달된 것으로 여기고 번번이 의심하였기 때문이다.⁶⁵⁾ 하지만 영해 부사 한효순이 청송에 도착하여 그를 직접 만나 일단 자신의 인신으로 명령을 대신하도록 하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박진은 청송과 진보 등지에서 흩어진 군사들을 불러 모으자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군사들이 증가하여 점차 그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⁶⁶⁾ 안동 일대에 주둔하였던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한 반격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박진을 수행하던 조방장 권응수가 7월 9일에 신녕으로 되돌아간 일이 발생하였다.⁶⁷⁾ 기존 연구에서는 박진이 그를 견제하고 싫어하여 되돌아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⁶⁸⁾ 권응수의 이러한 행보는 군영 이탈에 해당되는 중죄로서 좌병사 박진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권응수의 이탈을 제지하거나 군율로 처단하고자 하였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권응수가 되돌아갔던 신녕은 영천에서 군위-의성으로 연결되며, 또한 북쪽으로 노귀재를 넘어 청송-진보로 연결되는 길목의 요지였다. 만일 군위와 경주·영천 일대의 일본군들이 이 경로를 경유하여 청송 방향으로 공격한다면, 안동 지역의 적을 몰아내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해야 하는 박진으로서는 상당한 군사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추정하건대, 박진은 이러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권응수로 하여금 신녕과 영천 지역에 대한 작전을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신녕으로 돌아간 권응수가 군사들을 모으면서 法林院 大路邊과 군위 지역의 경계인 여음동의 요해처에 복병장과 군사들을 배치시켰고,⁶⁹⁾ 하양과 영천의 의병 부대와 연계하여 영천으로부터 封庫御史라 칭하고 신녕으로 향하던 일본군을

殲掠計料”

64) 『白雲齋實紀』 권2, 「啓」 4면. “守令等無助救 四散之軍 容易聚集不得”

65)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31쪽.

66)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46쪽.

67) 『白雲齋實紀』 권2, 「永川復城記」 9면.

68) 최효식,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투의 고찰」, 『대구사학』 47, 1994, 72쪽.

69) 『白雲齋實紀』 권2, 「啓」 4~5면.

朴淵⁷⁰)에서 격퇴시킴으로써⁷¹ 청송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였던 전투 동향을 들 수 있다. 이는 두 사람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알 수 있는 근거로 『白雲齋實紀』 중 권응수의 장계에서 그가 박진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⁷²)과 훗날 영천성 수복전투에서 박진이 대개 권응수의 책략을 받아들였다는 것⁷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일부 사료에서는 박진과 권응수 등의 의병장들의 관계가 대립적이었다고 기록하였지만, 이들은 일본군을 몰아낸다는 대의를 위해 대립 관계를 뒤로하고 상호 긴밀하게 협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송과 진보 등지에서 군사력을 확보한 박진은 안동부에 주둔하였던 일본군을 퇴각시키면서⁷⁴) 안집사 김륙과 만나게 되는데, 그의 권유를 받아 안동부에 군영을 설치하게 되었다.⁷⁵) 그리하여 그는 7월 19일에 안동에 입성하여 김륙으로부터 안동진의 군정을 넘겨받았다.⁷⁶) 이때 안동에서 축출된 일본군들은 풍산현 龜潭으로 이동하여 10여 일간 이 지역에서 노략질을 하였다. 이에 박진이 구담의 일본군을 격멸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만, 이 일대가 험준한 지형이었기에 그는 대신 정예병들로 하여금 밤을 틈타 진천퇴포를 쏘도록 하면서⁷⁷) 안동으로의 재침입을 차단하였다. 이를 통해 박진의 군사들이 진천퇴포와 같은 화약 무기를 상당수 보유하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전 안동 수복전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70) 박연은 안계·의흥과 영천·하양 등지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71) 『亂中雜錄』, 임진년 8월 1일 : 『白雲齋實紀』 권2, 「啓」 4~5면.

72) 『白雲齋實紀』 권2, 「啓」 6면. “左道東北段兵使朴晉 自變初至死督戰威名已 著力拾散卒分兵遏絕 以此時無復犯之患 爲白有昆 前後所殺賊未可計數”

73)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55쪽.

74)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46쪽.

『栢巖集』과 『鄉兵日記』에 따르면 조선군의 반격으로 일본군은 7월 9일에 예안에서(『鄉兵日記』 임진년 7월 9일), 18일에 안동에서 물러난 것으로 되어있다(『栢巖集』 권5, 「條陣慶尙道軍情賊勢狀啓」, 7면).

75) 『栢巖集』 권5, 「條陣慶尙道軍情賊勢狀啓」, “左兵使朴晉 來此近邑 臣與之相見 勸令留鎮安東”

76) 『栢巖集』 「年譜」, 萬曆 20년 7월.

안동으로 입성한 그는 의병장 배용길로부터 200여 명의 군사들을 넘겨 받았다(金垓, 『鄉兵日記』, 임진년 7월 19일).

77)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46~47쪽.

집작된다. 이는 일본군의 점령이 미치지 못했던 청송과 진보 등지에 위치해 있던 軍器庫에서 이러한 무기가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었고, 좌병사에 의해서 재편된 관군들이 이를 보유함으로써 그 전투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⁷⁸⁾ 안동 등지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을 퇴각시킨 박진은 강원도에서의 일본군 침입을 막기 위해 요소마다 장수와 군사들을 배치하면서 길목을 차단하였다.⁷⁹⁾ 이처럼 박진이 안동진의 군정을 장악함으로써, 이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고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예를 들어 7월 좌도 순찰사로 임명된 영해 부사 한효순이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성대한 행차를 하였는데 성 위의 일본군이 내려다보아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러한 관원의 威儀에 백성들이 기뻐했을 정도였다는 사례⁸⁰⁾가 이를 뒷받침한다.

마침내 경상좌병사 박진은 안동진을 좌병영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경상좌도의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사력을 재편함으로써, 도내의 군사 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또한 경주진과 대구진 일대의 관군과 의병들을 지휘하여 일본군의 침입을 격퇴하고 길목을 차단하였던 권응수의 활약도 박진의 이러한 군사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경상좌도의 조선군의 전투 양상은 그동안 지역 단위의 거점 방어에서 주요 읍성의 수복과 일본군 요격이라는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 작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78) 허선도는 임란 초기 일본군의 점령 형태가 완전한 全面占領이 아닌 중요 郡邑과 郡邑을 잇는 침공로의 주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른바 點線占領에 불과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전라도의 경우 주요 營鎮 및 郡邑을 비롯해서 사실상 일본군의 점령이 미치지 못한 후방 각지의 군기고에는 화약무기가 어느 정도 온존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무기는 전쟁초기 삼남지방의 의병들이 우선적으로 갖고 있었으며, 이는 다시 대오를 재정비하기 시작한 관군의 전투력으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許善道, 「제3장 韓國火器의 裝放法과 形態考」, 『朝鮮時代 火藥兵器史研究』, 일조각, 1994, 273쪽). 따라서 박진의 군사들도 이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진천포 등의 화약무기를 보유하였을 것이다.

79)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46~47쪽.

80) 申佺, 『譯註 亂蹟彙撰』, 역락, 51쪽.

2) 경상좌도 조선군의 반격과 주요 읍성의 수복

1592년 5월에 경상좌병사로 임명이 된 박진은 두달 만에 안동과 신녕 일대를 장악하면서 주요 읍성을 수복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으며, 권응수를 비롯한 대구진과 경주진 지역 의병장들도 이를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다.⁸¹⁾

그런데 6월 15일부터 19일 사이에 副總兵 祖承訓 등이 이끄는 명의 군사들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압록강을 넘어 남진하면서, 전쟁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를 호기로 삼은 조정에서는 7월 중에 하삼도의 조선군 부대에게 명군의 출전을 알리고 각지의 일본군을 요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⁸²⁾ 한편 안동에 주둔하고 있었던 경상좌병사 박진은 의병대장으로 임명된 권응수에게 명을 전달하여 擧事하도록 하였다.⁸³⁾ 이는 조정의 요격 명령이 경상좌병사를 통해 의병대장에게 하달된 것으로 판단된다.⁸⁴⁾

경상좌병사 박진과 의병대장 권응수가 경상좌도에 대한 반격 작전을 위해 영천성 수복을 우선적인 작전목표로 결정하였다. 여기서 이들이 영천성을 주요 읍성 수복의 우선 순위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자면, 영천성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시 영천성은 동쪽으로는 안강을 거쳐 영일과 경주로, 남쪽으로는 경산을 거쳐 청도와 대구 방면으로, 서쪽으로는 신녕을 거쳐 상주 방면으로, 또 신녕에서 의흥과 안동 방면으로, 북쪽으로는 청송에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교통로를 가지고 있었다. 이곳을 확보한다면 차후 경상좌도의 거진중 하나인 경주부를 탈환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분단되었던 안동진과 대구진,

81) 『亂中雜錄』, 임진년 8월 1일.

82) 『선조실록』, 권28, 25년 7월 19일 丙子. “傳曰 天兵已爲前進平壤 師期豫爲下書于下三道使之或微擊或尾擊 餘賊若由水路而去 則嶺南水使 以舟師追擊事 分明遣宣傳官速爲通諭”

83) 申佻, 『譯註 亂蹟彙撰』, 역락, p. 158. “時晉在安東 傳令應錄舉事”

84) 경상우도의 경우 조정의 명령이 경기도 순찰사를 통해 의병도대장(義兵都大將) 김면의 의병부대에게 전달되었던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鄭慶雲, 『孤臺日錄』 권1, 임진년 7월 13일).

경주진의 관군·의병의 연합 부대를 연결할 수 있는 주요한 요충지였다. 또한 영천성은 전쟁 초기 일본군의 후방 보급로 역할을 하였는데, 경주나 안강으로부터 의흥과 상주로 이어져 있어 그 지역적 중요성이 매우 컸었다.⁸⁵⁾ 만약 조선군이 이 지역을 수복한다면, 경상좌도를 통한 일본군의 보급로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었다. 따라서 박진과 권응수는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격작전의 우선 순위로 영천성 탈환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7월 23일 영천성 수복을 위해 의병대장 권응수는 瓦村에서 신녕과 영천·하양·자인·의흥 등의 의병 부대를 ‘倡義精勇軍’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다.⁸⁶⁾ 그 성격은 각 군현 단위의 의병 부대에서 이제는 보다 단일한 체제의 부대라는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 무렵 죽장현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던 경주 판관 박의장의 관군 부대가 권응수 부대와 합류하였는데, 경상좌병사 박진의 명에 따라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투에 참가하였던 조선군의 규모는 총 3,560~3,970명⁸⁷⁾으로 신녕과 경주의 군사들이 주축을 이루었는데,⁸⁸⁾ 이는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가한 조선군의 주력이 권응수와 박의장의 부대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울산, 영일, 장기, 흥해, 양산, 언양, 자인 등의 지역 의병 부대와 관군도 참가한 것으로 추정된다.⁸⁹⁾ 24일 권응수 등의 조선군은 영천성 남쪽 楸坪에서 지형과 지세를 고려한 작전 계획을 논의하면서 전투를 준비하였다.

85) 당시 경상우도 의병들은 낙동강으로 군량·군기 등의 군수물자를 수송하던 일본군의 선박을 격파하여 그들의 보급선을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군은 경상좌도로 물리게 되면서 이 일대는 중요한 후방기지 내지 병참보급지로 바뀌게 되었다(경상북도·영남대, 『경북의병사』, 1990, 218쪽).

86) 『백운재실기』에서는 영천 군수 김윤국이 창의정용군의 별장으로 영천성 수복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하지만 신희의 『난적취찬』에서는 김윤국이 충청도에 도망갔다가 영천 전투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임지로 돌아왔다고 하면서, 실제 참전하지 않았는데 공신의 반열에 들었다는 내용이 보인다(申仁, 『譯註 亂蹟彙撰』, 역락, 55쪽). 따라서 그 진위여부에 대한 명확한 사료 비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7) 최효식, 앞의 글, 1994, 76쪽.

88) 孫曄, 『淸虛齋文集』, 『龍蛇日記』. “永川人 圍城 倭翌日復城 新寧慶州軍亦多 斬獲合五百餘級”

89) 이욱, 앞의 글, 2009, 55쪽.

이때 경상좌병사 박진은 안강에 주둔하면서 군관 변응규로 하여금 화약과 군기(병장기) 등을 지급함으로써,⁹⁰⁾ 권응수 등의 조선군이 화공전을 감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를 통해 권응수 부대가 본격적으로 화약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그 전력이 상당히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박진이 안강현에 좌병영을 설치한 이유를 설명한다면 안강이 경주부 4倉 중 하나로 물자가 풍부하였다는 것과 이곳이 영천에서 불과 40리 떨어진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형산강의 한 지류에 위치한 七坪川을 끼고 경주와 영천을 연결짓는 교통의 요지였다는 것이다.⁹¹⁾ 따라서 박진이 안강에 좌병영을 설치한 이유는 영천성 전투에 대한 작전을 총지휘하면서 권응수 부대가 전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한편, 경주성의 일본군이 영천성에 대한 증원을 직접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경상좌병사 박진의 작전 지휘하에 의병대장 권응수와 경주 판관 박의장이 주장이 된 조선군이 영천성 수복 전투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7월 26일 새벽에 조선군은 영천성을 공격하였고, 28일 성을 완전히 수복하면서, 일본군 500명의 수급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⁹²⁾ 이렇게 조선군이 영천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관출신으로 전투 경험에 풍부하였던 권응수의 활약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각 陳의 부대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면서 기일을 약정하는 등 작전을 총지휘한 경상좌병사 박진의 역할⁹³⁾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 일본군은 경주-영천-안동을 잇는 보급로가 차단되어 상주로 철수하면서 그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좌도의 수습 읍이 보존하게 되었고 이 지역 백성들 또한 생기를 되찾았으며,⁹⁴⁾ 이 일대가 다시금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한편 경상우도내 의령, 삼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광재우 부대도 8월초 현풍, 창녕, 영산 등 경상

90) 『白雲齋實紀』 권2, 「永川復城記」.

91) 최효식, 앞의 책, 1993, 68쪽.

92) 영천성 수복 전투에 대해서는 이형석, 『임진전란사』, 1977, 423~426쪽에 자세히 다.

93) 申佖, 『譯註 亂蹟彙撰』, 역락, 55쪽.

94) 경상북도·영남대, 『경북의병사』, 1990, 218쪽.

좌도의 일부 지역을 수복하면서,⁹⁵⁾ 전황은 조선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때 영천성을 수복하였던 조선군은 자인현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을 연이어 격파하고,⁹⁶⁾ 그 기세를 몰아 8월 20일 박진이 안강에서 권응수와 박의장을 선봉으로 삼아 직접 16읍의 군사 1만여 명을 이끌고, 야간에 경주성을 수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조선군은 언양 방면으로부터 증원된 일본군의 배후 공격을 받게 되었고, 급기야 경주성의 일본군으로부터 협공을 받아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고 다시 안강으로 철수하였다.⁹⁷⁾ 그럼에도 경주성 탈환의 의지를 거두지 않았던 박진은 안강에 주둔하면서 야간을 틈타 포를 쏘도록 하였고, 중요한 길목에 복병을 두어⁹⁸⁾ 일본군의 증원을 차단하면서 경주성을 고립시키는 전술로 전환하였다. 또한 그는 박의장에게 결사대 1,000여 명을 지휘하게 하여 경주성을 주야로 공격하도록 하였다.⁹⁹⁾ 마침내 9월 8일 일본군이 경주성에서 울산 방향으로 퇴각함으로써, 조선군은 경주성을 탈환하였다. 이때 조선군은 경주성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4만여 석의 군량을 획득함으로써, 경주 이남의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였다.

영천성과 경주성에서 퇴각했던 일본군은 경상좌도의 주요 요충지를 상실하여 부산에서 한성까지의 보급로 유지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등¹⁰⁰⁾ 차후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반면, 조선군은 언양과 울산으로 통하는 길목을 막고 울산에서 부산으로 다니는 길을 차단시키면서¹⁰¹⁾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95) 이장희, 『곽재우연구』, 양영각, 1983, 167~171쪽.

96) 『觀感錄』, 『年譜』 선조대왕 25년 8월 7일 : 『白雲齋實紀』 권2, 「啓」 6면.

97) 이형석, 『임진전란사』, 1977, 478~479쪽.

98) 申佖, 『譯註 亂蹟彙撰』, 역락, 56쪽 : 『亂中雜錄』, 임진년 9월 12일.

99) 최효식, 앞의 책, 1993, 62쪽.

100)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壬辰倭亂史』, 1987, 117쪽.

101) 『觀感錄』 권1, 「家傳」, “府君遂游兵彥蔚兩路 日事遮截 賊之自蔚山闌入至釜山上來者 不敢衛斥 永川新寧一路之開拓”

4. 맺음말

임진왜란 개전 당시 경상좌도의 조선군은 대규모 일본군의 신속한 침공과 지휘관인 좌병사 이각의 도망으로 인해 연이어 패배를 거듭하면서 그 지휘체계와 군사력이 와해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이 유린을 당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좌도내 일부 관군 장수들은 군현별로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하고 자신의 책임 지역을 지키면서 일본군에 대한 지속적인 항전을 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관들의 공백이 있는 고을에서는 권응수와 같은 전직 무관과 사족 등의 의병장들이 '散卒' 즉 흩어진 관군들을 수습하여 의병을 일으키면서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의병으로 알려진 군병들은 대개 흩어진 관군들이 다시 모여 편성한 병력이었으며, 준관군적인 부대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끈질긴 항전에도 불구하고, 경상좌도의 조선군은 개전 초기 지휘부의 와해로 인해 각 관아에 대한 명령체계가 확립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에 대한 조직적인 반격 태세를 갖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5월경 밀양 부사 박진이 경상좌병사로 임명을 받으면서, 좌도의 조선군은 지휘체계 복구와 군사력 재편은 물론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을 감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경상좌도로 넘어오면서 일본군의 침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안동진에서 좌병영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 지역을 거점으로 그는 장차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었던 주요 읍성들을 수복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박진은 권응수의 군사적 지원으로 안동진에서 경상좌도의 지휘체계를 복구하면서 군사력을 재정비하였다. 이로써 조선군은 주요 읍성의 수복이라는 전면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7월경 명군의 참전 소식과 함께 조정의 요격 명령이 내려지자, 박진은 권응수와 함께 교동의 요충지이자 일본군의 후방 보급로에 위치하였던 영천성을 공략하여 수복하였고, 그 기세를 몰아 경상좌도의 거진이었던 경주성도 탈환하였다. 영천성과 경주성의 탈환에 성공한 조선군은 언양과 울산으로

통하는 길목과 울산에서 부산으로 다니는 길을 차단시키면서 일본군의 보급로 유지를 어렵게 하는 등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게 되었다.

이 글은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 양상을 경상좌병사 박진과 권응수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관군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구명한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몇 가지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 먼저 국내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토함에 따라 당시 경상좌도의 전황을 다룬 일본측의 자료나 연구 성과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국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경상좌도 의병이 준관군적 부대였다는 것을 전개시키면서도 관군과 의병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했으며, 문집이라는 제한된 자료를 근간으로 이 지역의 전쟁 양상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경상좌도 내 일부 지역인 안동·경주 등의 관군 부대와 의병의 동향을 함께 종합하면서 그 성과를 검토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국내 자료에 편중된 검토보다 당시 일본측의 기록들을 활용하여 동일 시간별로 비교하고 종합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문집이 갖는 사료적 한계는 연대기 등의 객관적 자료들이 좀 더 폭넓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상좌도 관군과 의병 관계의 역사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을 밝히는데 좀 더 집중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 2012. 1. 3, 심사수정일 : 2012. 2. 10, 게재확정일 : 2012. 8. 14)

주제어 : 임진왜란, 경상좌도, 박진, 권응수, 관군, 의병, 거점 방어, 지휘체계, 영천성 수복전, 경주성 탈환전

<ABSTRACT>

Response of the Left Gyeongsang Province of Joseon Troop in the Early Phase of the Japanese Invasion, 1592

Kim, Jin-soo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s a part of a large international war, had such a great ripple effect that it brought various changes in all areas of society and politics of the East Asian region. Factors that contributed to overcoming the war were the activities of Joseon's naval forces and a righteous army, leadership of the generals and admirals and others. Above all, activities of the righteous army were highly regarded and recognized as a major factor of overcoming the war even today. In regard to riposte of left Gyeongsang province at the beginning of the war, prior studies dealt with it superficially, the government Troops nearly collapsed and righteous army took the initiative. However, taking a closer look at the inside facts, we find out that despite collapse of a line of command due to Japanese large invasion, not a few of the government commanders of left Gyeongsang province defended the forts in their assigned area. Also, in areas which local government officers left, in place of them, scholar groups or former officers in the region raised up forces by gathering scattered soldiers and fought against the Japanese, taking their own military actions.

Afterward, as Commander Park jin of left Gyeongsang province troops took Andongjin as a military base, Joseon army of left Gyeongsang province began to establish a line of military command in earnest and rebuilt a military force. It was possible because there were activities of Gwon eung-su, who commanded the government Troops and righteous army in Gyeongju and Daegu, repulsing the Japanese army and intercepting its attack. As a result, Joseon army of left Gyeongsang

province's fighting aspect changed from defense of local military base into an overall and an organized counterattack like recapturing a town fort and conducting surprises attack on the Japanese troops. In addition, Yeongcheon fort and Gyeongju fort, which were in strategic locations, were recaptured and the situation of the war turned in favor of the Joseon.

Key Words : The Japan Invasion of 1592, Left Gyeongsang Province, Pack Jin, Gwon Eung su, Government Troops, Righteous Army, Strategic locations, Government commanders, Recovering Yeongcheon Castle, Recapture of Gyeongju Castle